

## 성매매 여성의 외상 경험과 이성 관계 집착

김수지<sup>1\*</sup>

<sup>1</sup>대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Traumatic Experience and the obsessive behaviors in romantic relationship of Female Sex Workers

Su-Sie Kim<sup>1\*</sup>

<sup>1</sup>Division of Counseling Psychology, Daegu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성매매 여성의 이성 관계 집착 양상을 일반 여성과 비교한 후 매매 아동기 외상 및 성매매 중 외상 경험이 이성 관계 집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성매매 여성 및 일반 여성 각 42명이었다. 연구 결과, 성매매 여성은 일반 여성에 비해 이성 관계 집착 중 외로움, 질투, 과민함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경우 성매매종의 외상 경험은 이성 관계 집착과 상관성이 없었으나, 아동기 외상은 이성 관계 집착과 관련성이 있었고 특히 방임 및 가족 내 비밀은 이성 관계 집착과 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이 높았다. 일반 여성의 경우 아동기 외상이 이성 관계 집착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으며 가족 내 비밀과 신체 학대가 이성 관계 집착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회귀 분석결과, 일반 여성의 경우는 아동기 외상 중 신체적 학대가 이성 관계 집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매매 여성의 경우는 방임이란 아동기 외상요인이 이성관계 집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obsessive behaviors in romantic relationship of 42 female sex workers and the effect of traumatic experiences on them. Research results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oneliness, jealousy, over sensitiveness between the female sex workers group and the controls. But fear of rejection and doubt in the romantic relationship a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emale sex workers group than in the controls. Among the subscales, childhood neglect and family secret were most frequently associated with the various obsessive behaviors. This is also the case for the control group, with family secret and physical abuse being the most. Finally, in regression analysis, in the control group, childhood physical abuse had the biggest impact on the obsessive behaviors in romantic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the target group, childhood neglect had the biggest impact on the obsessive behaviors in romantic relationship.

**Key Words** : Childhood abuse, Female sex workers, Romantic relationship, Trauma during prostitution.

## 1. 서론

### 1.1 성매매 여성의 실태

2006-2010년에 걸쳐 전국 100 여개 지역에 걸친 성매매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약 9천 명에서 1만 명 정도의 여성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1].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착취를 나타내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사회현상이다. 1960년대 정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하여 성매매 여성을 윤리적 교정, 교화의 대상으로 간주하였고, 70년대에는 외채 압박을 줄이고 무역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적 차원의 관광산업 개발을 빌미로, 성매매가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장려되기도 하였다. 80년대에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다양해지고 성산업이 비공식 부문의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되었으며, 90년대에는 외국인 여성의 수입이 나타나고 이들

\*Corresponding Author : Su-Sie Kim (Daegu Cyber Univ.)

Tel: +82-10-4239-4255 email: chinablue9@hanmail.net

Received March 19, 2013

Revised April 10, 2013

Accepted April 11, 2013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수요도 증가하였다. 성매매 문제는 이렇듯 일부 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이면을 가지고 있다[2]. 그러나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 사건, 2001년 부산 원월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 2002년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 사건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의 인권실태가 사회에 알려지고, 2001년 미 국무성의 인신매매보고서에 의하여 한국이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 국가로 규정됨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3].

성매매가 인간에 대한 폭력이고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미국의 사회학자인 Barry Kathleen은 성매매를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과 성적행위를 매매하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의 결과이자 수단이고, 인신매매·성적학대·강간·폭행·언어폭력·인종차별·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정의하였다[4,5]. 성매매의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선불금이라는 명목 하에 지워지는 경제적 약순환 뿐 아니라,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감금, 폭행 등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환경에 비자발적으로 적응하게 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되면서 정신적 불안이나 약물 의존, 사회적 고립과 자포자기에서 오는 무기력 등을 포함한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6].

## 1.2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 및 아동기 외상경험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시 포주와 인신 매매범, 성구매자들에 의해 폭행과 강간·살해위협·감금 등의 폭력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성매매 자체는 외상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5]. 성매매의 부정적 경험은 성매매 여성에게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손상을 입힌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지속적인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당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자살을 택하기도 한다. 폭력, 착취 등으로 인한 불안장애(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와 우울 증세, 성인 혹은 남성들에 대한 불신과 성희롱에 의한 모멸감은 만성화되기도 한다. 특히 어린 나이에 가출하여 오랫동안 성매매를 한 여성들은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약물 중독이나 섭식증, 경계선장애, 해리장애, 성기능장애, 주체성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 장애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정상적인 생애주기를 거치지 못한 결과, 전인적 성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여 다양한 성격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편집증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한 심리치료 필요성에 관한 연구와 주장이 학계에 활발히 대두되고 있다. 주요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김현선은 연구를 통해 폭력이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심리적 외상 정도(59.37)가 베트남 참전군인의 심각도(50.6)나 걸프 참전군인의 심각도(34.8), 아동기 성적학대 경험을 가진 성인여성의 심각도(30.6)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 하였다[7]. 또한 Farley가 조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군이나 다른 국가의 성매매 피해여성들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성매매 피해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밝혔었다[8]. 조진경 역시 12,105건의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끊임없는 자살충동과 자살시도, 조울증, 정서불안, 대인관계불능, 자기통제 곤란, 성격장애 등 27개의 정신적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9]. 채정호는 전국 23개의 단체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정신건강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 결과, 탈 성매매를 했더라도 피해자들이 여전히 다양한 신체 증상 및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연관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10]. 조정자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81.7%가 당장 심리치료를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병리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 여성 대상 우울증 상담 및 치료를 시급한 문제로 제기하였다[11,12].

성매매 유입 동기 측면에서는 어린 시절의 부적절한 성장환경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기부터 성매매를 시작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Shaw와 Butler의 연구는 청소년기 성매매 진입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아동기 학대경험을 꼽았다[13]. 아동기에 양육자로부터의 방임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험, 성폭행을 당한 경험 등은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14-15]. James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성매매 여성의 49.1%가 아동기에 성적 학대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15]. 남미애와 홍봉선도 성매매청소년 교육 수강제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아동기 방임을 이룬 나이에 경험할수록 성매매 유입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17]. 이는 McMullen, Schissel과 Fedec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18,19].

## 1.3 성매매 여성의 외상경험과 이성관계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는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필수적인 측면이다[20]. 원만한 대인관계는 개인의 정체감 확립, 자아성

취감, 욕구 만족으로 이어진다. Sullivan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한 개인이 성장할 수 있으며 관계를 통한 지지와 격려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절망을 버티게 하는 힘이라고 보았다.

여러 대인관계에서도 성인 남녀의 이성교제(dating)는 초기 성인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의 하나로 두 사람의 상호작용으로 서로에 대한 욕구와 기대되는 역할을 학습하게 한다[21]. 개인은 이성과의 만남 속에서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나 특징들을 이해하거나 통찰할 수 있게 된다[22].

많은 연구에서 아동기의 외상경험은 개인이 성장하는데 어려움과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Allen은 다양한 외상사건 중에서 가정 폭력이나 아동학대가 개인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끼쳤으며, 아동기 외상경험이 성인기에 이성교제나 데이트 관계의 질 및 이후의 결혼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23]. 또한 김은정에 따르면 아동기의 외상경험은 정서적 양가성 문제를 일으키고,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성인기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4,25]. 이유경은 아동기 외상경험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 수준도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는 Briere와 Runtz, 하정희, 조은정, 김난영 연구와 일치한다[26,27,28,29,30]. 또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높을수록 이성관계에서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박윤경과 아동기 학대와 방임이 대인관계 갈등과 관련이 있다는 Shapiro, 이태영의 결과와도 맥락이 유사하다[31,32,33]. 이와 더불어 황지영은 불안, 우울, 소외와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이 대인관계에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원인으로 보았다[34].

성매매 여성들의 경우 앞서의 성매매 여성의 외상경험에 관련한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기의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 등 외상 경험률이 일반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성매매 이전 또는 성매매 도중 신체적 위협, 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의 강력한 외상경험과 그로 인한 우울, 불안, 부정적 자아상, 낮은 자존감 등 심리적·정서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태임이 드러났다[35].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적 폭행의 일반적인 결과는 성격기능장애, 자기 파괴적 성향, 자기혐오, 사회적 고립감, 낙인감, 자존감 상실, 무력감, 죄책감, 성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 등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외상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인격을 발달시킬 수 없게 만들고, 이는 성매매 여성이 이성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거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높을 가능성에 대해 시사한다.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이 사회로부터 낙인찍혔다고 생각함으로써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협조적인 대인관계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 업주로부터의 착취 속에서 무력감과 의존성을 형성한 성매매 여성들이 업주의 작은 호의에도 감사하게 되고, 물리적인 허용에도 불구하고 업주를 떠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36]. 이경희와 김봉환은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조절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정서표현 양가성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경우 대인관계 능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37]. 불안정 애착 또한 대인관계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성인기의 부적응적이고 부적절한 이성관계에서의 태도는 불안정한 애착과 연관이 있으며, 집착행동은 불안 애착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38]. 즉 불안 애착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거절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귀인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버림받을까, 사랑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파트너의 행동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등 파트너에게 집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39]. 이러한 부적응 행동은 자신의 성숙과 성장을 방해하며 현실적 적응이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는다.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자의식이 건강하지 못할 경우에도 부적절한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었다[40]. 연구 결과들은 아동기 외상 및 불안정한 애착 경험을 자주 경험한 성매매 여성들이 대인관계 지속에 대한 어려움과 남성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과 태도로 인하여 이성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성매매 여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성매매 생활에서 벗어나 탈성매매하는 것이다[7]. 비록 외부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 결여 등으로 이를 실천에 옮기기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지만[42], 신체영이 성매매 여성들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년 후 본인들의 모습으로 행복한 가정주부가 30%를 차지해 청소년 시절 가족이 화목하지 못했던 성매매 여성들이 성인이 되어 화목한 가정에서 살고 싶은 강한 욕구를 나타냈다. 또한 늘 옆에 있어주는 든든한 지지자나 이성친구의 존재 유무가 사회 복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43].

그런데 이렇게 성매매 여성들의 재활과 사회 복귀에 주변인의 정신적인 지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착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사회복지 정책 연구[44], 성매매의 규제 정책에 대한 비실효성을 비판하고 개정을 촉구하는 연구[45-47]와 성매매로의 유입 원인이나 탈성매매를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연구[48,4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가 있어 왔다[7,50,51]. 그리고 성매매의 폭력성에 대한 연구[7,52,53]와 청소년 성매매 실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54-56].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성매매 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개별 성매매 여성에게 적합한 심리치료 및 예술치료에 대한 다수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다[57-60].

이러한 다수의 성매매 관련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매매 여성을 한 인간으로서 대하고 그녀들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연구들, 즉 정신건강이나 정신병리적인 차원이 아닌 인간적 관점에서 성매매 여성의 이성관이나 결혼관, 성태도 및 성의식 등을 연구한 논문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외상 경험이 분명 대인관계 및 이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상경험과 이성관계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또한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인간이해를 위해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대인 관계경험을 연구하는 측면에서 성매매 여성의 외상적 경험이 이성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이를 일반여성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고자한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이성관계에 대한 집착이 아동기 학대경험, 성매매 동안의 외상경험과는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일반여성 집단과도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매매 여성은 일반 여성보다 이성관계 집착 정도가 높을 것인가?

가설 1. 성매매 여성은 일반 여성보다 이성관계 집착 정도가 높고 집착 양상이 다를 것이다.

연구문제 2. 성매매 여성의 외상경험은 이성관계 집착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가설 2. 성매매 여성의 아동기 외상경험은 이성관계 집착과 정적 관계가 있고 이성관계 집착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 동안 외상경험은 이성관계 집착과 정적 관계가 있고, 이성관계 집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일반여성의 아동기 외상경험은 이성관계 집착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가설 4. 일반여성의 아동기 외상 경험은 이성관계 집착과 정적인 관계가 있고, 이성관계 집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4. 성매매 여성과 일반 여성이 경험한 외상 경험 중 어떤 외상적 요인이 이성 관계 집착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방법

#### 2.1.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2년 4월에서 9월에 걸쳐 서울 지역 3곳, 대전 1곳, 대구 1곳의 성매매 여성 쉼터에서 탈 성매매 후 보호를 받고 있는 쉼터 입소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가 수집된 성매매 여성 45명 중 답변 불성실로 3건이 누락된 42명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비교 집단은 경기 지역 1곳, 서울 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구 지역 사립대학교 이렇게 총 3곳에서 자원한 학생 총 50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남성 및 답변 불성실로 8건이 누락되어 총 42명의 일반인 자료가 수집되었다. 성매매 집단의 연령범위는 18세부터 40세로 평균 연령은 25.57세(표준 편차 6.13)였으며, 일반 여성 집단의 연령범위는 17세부터 44세로 평균 연령은 24.45세(표준 편차 9.21)였다.

[Table 1] Demographic results of sex workers group and the controls

	years	Sex Workers Group(person) n=42	the controls (person) n=42	t
AGE	15-24	21(50.0%)	25(59.5%)	.66
	25-34	16(38.1%)	7(16.7%)	
	35-44	5(11.9%)	10(23.8%)	
	Average(SD)	25.57(6.13)	24.45(9.21)	
Edu- ca- tion	under middle school	8(19.0%)	0(0.0%)	-.95
	high school	31(73.8%)	34(81.0%)	
	university	2(4.8%)	8(19.0%)	
	above univ.	1(2.4%)	0(0.0%)	
	Average(SD)	11.39(2.03)	11.80(1.86)	
Mar- riage	unmarried	35(83.3%)	33(78.6%)	-
	married	2(4.8%)	8(19.0%)	
	divorced	2(4.9%)	0(0.0%)	
	others	3(7.0%)	1(2.4%)	

\* p<.05, \*\* p<.01, \*\*\* p<.001

두 집단의 연령과 학력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각각 t=.66, p=.514, t=-.95, p=.344).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한편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 유입연령과 성매매 종사 기간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성매매 집단의 성매매 기간의 범위는 1년-15년이었고, 성매매 유입연령은 11세-13

세였다.

[Table 2] Prostitution related factors of sex workers group

	Sex Workers Group (person) n=42
years	
under 1	10(23.8%)
1-5	17(40.5%)
5-10	10(23.8%)
over 10	5(11.9%)
Average(SD)	52.86 months(48.91)
Age of Prostitution Beginning	
under 15	6(14.3%)
16-20	28(66.7%)
21-25	5(11.8%)
25-30	2(4.8%)
over 31	1(2.4%)
Average(SD)	18.67(3.65)

2.2 측정도구

2.2.1 이성관계 집착 설문지

우아미(2008)가 개발한 설문지로 이성관계 집착 정도를 측정하며, 외로움/불완전감, 거부 두려움, 질투심, 의심, 과민성의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로움/불완전감은 파트너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완전하게 느끼거나 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거부 두려움은 파트너에게 거절당하지 않을지 불안해하는 행동, 질투심은 파트너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며 파트너를 독점하고 싶어하는 행동, 의심은 파트너의 애정에 대한 불신, 과민성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에 매우 민감해서 나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총 38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95로 보고되었다.

2.2.2 아동기 외상 경험 설문지(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

Herman과 Kolk(1990)가 개발하였고 18세 이전 외상 경험을 측정하는 총 42문항 4점 척도로 된 설문지이다. 유능감, 안전감, 방임,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과의 분리 경험, 가족 내 비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가정폭력 목격, 술과 약물남용의 노출의 10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나래가 번역하였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70으로 보고되었다[61].

2.2.3 성매매 중 외상 경험 설문지

김현선의 성매매 경험에 대한 설문지를 토대로, 성매

매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직접 구성된 설문지이다[7]. 협박/구타/폭행과 같은 신체적 폭력, 성폭력, 산부인과계 질병, 고립/배신, 보호 경험의 총 5개 영역을 16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여 발생 빈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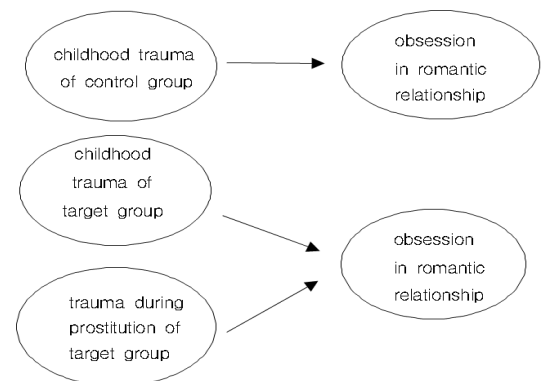
[Table 3] 측정 도구 정리

Questionnaire	Author	Subscales
Romantic Relationship Obsessions Q	Amy Woo (2008)	5 subscales Total 38 items 5 point scale
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Herman & Kolk (1990)	10 subscales Total 42 items 4 point scale
Traumatic Antecedents during Prostitution Q	Hyeon Sun Kim	5 subscales Total 16 items 5 point scale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령과 학력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test를 통해 평균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성관계 집착 척도의 총점 및 하위 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한 후 t-test를 통해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고, 성매매 집단, 일반인 집단 각각에 대해 아동기 외상 경험 및 성매매 중 외상 경험과 이성관계 집착 정도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외상 경험과 성매매 중 외상 경험이 이성관계 집착 정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매매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각각에 대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모형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 3. 연구 결과

#### 3.1 성매매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이성관계 집착 총점 및 하위요인 점수 비교

두 집단의 이성관계 집착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t-test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otal score and subscale of the obsessive behavior in romantic relationship of sex workers group and the controls

Scale of obsessive behavior	Sex Workers Group	The Controls	t
	n=42	n=42	
	M(SD)		
Total	100.17(35.00)	89.55(20.21)	1.67
loneliness/incomplete feeling	13.52(4.52)	12.81(3.65)	.80
rejection fear	23.55(10.31)	19.54(5.81)	2.18**
jealousy	18.78(6.75)	17.98(4.53)	.64
doubt	25.00(11.26)	20.32(6.30)	2.33**
over sensitiveness	19.00(6.73)	19.10(4.76)	-.08

\* p<.05, \*\* p<.01, \*\*\* p<.001

측정 결과, 성매매 집단이 일반인 집단보다 이성관계 집착 하위 요인 중 ‘거부 두려움’과 ‘의심’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총점 및 나머지 요인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 성매매 집단의 아동기 외상과 이성관계 집착 정도 간 상관

성매매 집단의 아동기 외상과 이성관계 집착 정도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childhood abuse and obsessive behavior in romantic relationship of sex workers group

Scale	Total score	loniness/incomplete feeling	rejection fear	jealousy	doubt	over sensitive ness
Total score of childhood trauma	.47**	.25	.51**	.37*	.33*	.54**
competence	-.02	.14	-.13	-.05	.04	-.03
sense of safety	-.14	.04	-.26	-.16	-.05	-.16
neglect	.49**	.38*	.51**	.38*	.37*	.51**
detachment	.23	.17	.25	.21	.15	.26
family secret	.38*	.35*	.33*	.34*	.26	.41**
physical abuse	.16	.06	.18	.11	.15	.16
emotional abuse	.30	.14	.34*	.23	.20	.38*
sexual abuse	.34*	.16	.33*	.21	.34*	.35*
observation of violence	.16	.06	.15	.11	.11	.25
drug abuse	.22	.17	.17	.27	.03	.50**

\* p<.05, \*\* p<.01

상관 분석 결과, 아동기 외상 총점은 이성관계 집착 총점 및 5개 중 4개의 하위요인과 r=.30~.55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 중 ‘방임’이 이성관계 집착 총점을 비롯한 모든 하위요인과 r=.35~.55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 내 비밀’이 이성관계 집착 총점을 비롯한 4개의 하위요인과 r=.30~.45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한편, 이성관계 집착 요인 중 ‘거부 두려움’과 ‘과민’ 요인이 아동기 외상 경험 총점 및 10개 중 4~5개의 하위요인과 r=.30~.55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아동기 외상 중 ‘약물 문제에 대한 노출’이 ‘과민’과 r=.50의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 3.3 성매매 집단의 성매매 중 외상과 이성관계 집착 정도 간 상관

성매매 집단의 성매매 중 외상과 이성관계 집착 정도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상관 분석 결과, 두 변인의 총점을 비롯한 모든 하위 요인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Correlation between trauma during prostitution and obsessive behavior in romantic relationship of sex workers group

Scale	Total score of obsession	loniness/incomplete feeling	rejection fear	jealousy	doubt	over sensitiveness
physical abuse	.05	.01	.09	-.05	.07	.00
sexual abuse	.06	-.06	.14	-.06	.12	-.01
obstetrics disease	-.14	-.10	-.11	-.22	-.12	-.04
isolation/betray	.03	-.02	-.02	-.01	.13	-.04
custody	.09	.16	.14	.01	.02	.04

\* p<.05, \*\* p<.01

#### 3.4 일반인 집단의 아동기 외상과 이성관계 집착 정도 간 상관

일반인 집단의 아동기 외상과 이성관계 집착 정도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상관 분석 결과, 아동기 외상 총점은 이성관계 집착 총점, ‘거부 두려움’, ‘의심’과 r=.35~.50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 중 ‘가족 내 비밀’

이 이성관계 집착 총점 및 4개 하위요인과  $r=.30\sim.50$ 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가 이성관계 집착 총점 및 3개 하위요인과  $r=.30\sim.50$ 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한편, 이성관계 집착 요인 중 ‘거부 두려움’이 아동기 외상 경험 총점 및 10개 중 6개의 하위요인(외상 보호 요인인 안전감과는 부적 상관)  $r=.30\sim.50$ 의 수준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Table 7] Correlation between childhood abuse and obsessive behavior in romantic relationship of the controls

Scale	Total score	loniness/incomplete feeling	rejection fear	jealousy	doubt	over sensitiveness
Total score of childhood trauma	.42**	.27	.47**	.17	.37*	.28
competence	.07	.06	-.07	.22	.05	.02
sense of safety	-.20	-.11	-.33*	.08	-.21	-.10
neglect	.39*	.25	.27	.21	.41**	.19
detachment	.35*	.19	.35*	.19	.36*	.21
family secret	.42**	.33*	.40*	.36*	.16	.43**
physical abuse	.44**	.32*	.46**	.29	.27	.37*
emotional abuse	.11	.09	.32*	-.11	.05	.03
sexual abuse	.41*	.28	.31*	.17	.47**	.28
observation of violence	.30	.21	.28	.21	.25	.19
drug abuse	.12	-.01	.23	-.14	.25	.01

\*  $p<.05$ , \*\*  $p<.01$

### 3.5 성매매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이성관계 집착에 대한 아동기 외상 경험의 영향

아동기 외상 경험의 하위 요인이 성매매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각각에서 이성관계 집착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8, Table 9와 같다.

성매매 집단의 경우, 아동기 외상 경험의 10개 하위요인 중 ‘방임’이 이성관계 집착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약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인 집단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약 18%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effects of childhood trauma and trauma during prostitution on the obsessive behavior in romantic relationship of sex workers group

	B	Beta	t	p
neglect	7.55	.54	3.97	0.00

$R^2=.29$ ,  $F=15.54$ ,  $p<.001$

[Table 9] effects of childhood trauma on the obsessive behavior in romantic relationship of the controls

	B	Beta	t	p
physical abuse	7.27	.45	3.02	.01

$R^2=.18$ ,  $F=9.14$ ,  $p<.01$

##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 여성과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외상 경험을 파악한 후 아동기 외상경험과 성매매 중 외상경험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외상경험이 이성관계 집착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외상경험이 성매매 집단과 일반인 집단에서 이성관계 집착 정도에 어떠한 상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성매매 여성과 일반인 여성간의 간의 이성관계 집착을 비교한 결과 외로움/불완전감, 질투, 과민성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성매매 여성이 일반인 여성보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매매 집단이 전체적으로는 이성관계 집착 정도가 일반인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일반인보다 파트너를 생각하면 우울이나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파트너가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며, 파트너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지 의심하여 매 시간 문자를 주고 받으려 하거나 휴대폰 문자 같은 것을 수시로 확인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매매 집단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아동기 애착이나 주변인 지지에 결핍되었던 경험이 많았고, 거절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파트너의 행동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우아미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35,39].

둘째, 성매매 집단의 아동기 외상과 이성관계 집착 정도 간의 상관분석 결과, ‘방임’이 외로움/불완전감, 거부/두려움, 질투, 의심, 과민성의 5개 하위요인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가족 내 비밀’이 의심을 제외한 외로움/불완전감, 거부/두려움, 질투, 과민성의 4개 하위요인과 유

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에 가족 중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낸 성매매 여성일수록 쉽게 외로움을 느끼고, 이성에게 버림 받을까 두려움이 크고, 파트너의 행동을 수시로 확인하고, 다른 이성에게 질투심을 느끼며, 파트너를 생각하면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기에 가족 내 비밀이 많았던 성매매 여성일수록, 파트너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 받고자 하고, 외로움과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들을 많이 느끼고, 파트너에 대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질투심을 느끼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안, 우울, 소외와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이 대인관계에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원인이라고 한 황지영의 연구나 34]. 성매매 여성들은 불안정한 애착과 버림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민감성과 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성에게 집착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우아미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39].

성매매 집단의 성매매 중 외상과 이성관계 집착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놀랍게도 두 변인의 총점을 비롯한 하위 요인 모두에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매매 집단의 경우 성매매 중 외상경험이 아닌 아동기 외상경험이 이성관계에 전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성인기 외상보다 아동기 애착 관련 외상 경험의 더 큰 영향력을 보고한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40].

셋째, 성매매 여성이 아닌 일반인 집단의 아동기 외상과 이성관계 집착 정도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아동기 외상 중 ‘가족 내 비밀’은 이성관계 집착 총점과 하위요인 중 ‘외로움/불완전감’, ‘거부 두려움’, ‘질투’, ‘과민’의 4개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신체적 학대’는 이성관계 집착의 하위요인 중 ‘외로움/불완전감’, ‘거부 두려움’, ‘과민’의 3개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에 가족 내 비밀이 많거나 가족 안에 일어나는 일을 밖에서는 모르게 했던 경험이 있는 일반여성일수록, 외로움이 심하고 파트너가 떠날까 봐 불안해하고, 파트너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받고자 하고 자신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체적 학대가 있었던 일반인일수록, 이성관계를 맺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이성에게 집착하기 보다 오히려 이성을 거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외상경험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 수준도 유의미하게 높다고 한 Briere와 Runtz, 이유경, 김난영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26,27,30]. 또한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조은영, 고나래의 연구[29,61]와 아동기 외상경험과 대인관계문제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아동기 외상경

험이 초기 성인기의 높은 대인관계갈등과 관련이 있다는 최은영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62]. 이는 성매매 여성이든 일반여성이든 이성관계 집착 정도는 아동기 외상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외상경험이 성매매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각각에서 이성관계 집착 정도에 어떤 상대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회귀분석 결과, 성매매 집단의 경우, 아동기 외상경험의 10개 하위 요인 중 ‘방임’이 이성관계 집착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 집단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매매 여성은 아동기에 가족으로부터의 방임되었던 경험으로 인하여 이성관계에 집착하게 되고, 일반인 여성의 경우 아동기에 신체적 학대를 당했던 경험으로 인해 이성관계에 대한 거부나 관계맺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는 일반인의 경우 외상경험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가 성인기 부적응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63].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 본 바와 같이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를 벗어나 건강한 가족을 꾸리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7, 42, 4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두려움으로 인해 성매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 역시 성매매 여성들이 일반 여성과 마찬가지로 친밀한 관계의 욕구가 강하지만, 이성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고, 질투심이 높으며,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양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지속되어져 온 내면의 갈등은 결국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이성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는데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 여성의 경우는 신체적 학대가 이성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하고 인과론적인 요인인 반면, 성매매 여성의 경우 성매매 자체의 외상보다도 아동기에 돌봄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방임당한 기억들이 이러한 양가적 갈등을 유발,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일반 여성들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성매매 여성들의 이성관계의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의 상담과 재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임을 시사한다. 즉 성매매 여성들의 자기 안의 이성관계의 양가성, 특히 내면의 외상 즉 부모의 방임과 분리가 성매매 유입과 이후 대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상담과 심리치료의 기초를 마련한다면, 향후 이들이 성매매를 벗어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사회에 재적응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 수가 적고, 연령분포가 초기 성인기에 치우쳐 있으며 탈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전체 성매매 여성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서울 3곳과 대전 1곳, 대구 1곳의 성매매 여성 쉼터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기 때문에 대표성에 지역적 한계도 있으므로,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매매 여성의 이성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녀들의 이성교제 실태를 파악하여 전체 성매매 여성들과 비교한 후 연구결과를 분석해야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이성관계는 일방적인 관계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양방향적인 관계인데, 본 연구에서는 상대방 남자의 특성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고, 여성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이성관계 집착 정도만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상대의 평가를 포함하여 이성관계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논의 대상이 여성에 국한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성매매 연구 대상은 남성 성매매자이나 동성끼리의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포함을 시켜, 남녀의 성차가 있는지도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매매의 전체적인 성격구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s

[1] Na Yoon Hu, Soon Yeol Woo, Eun Ju Yoo, Jeong Im Hwang, Ok Keong Lee. "Center for Women's Human Rights" Jongihak. 2006.

[2] Hwa Soon Byun. "A Study on Rehabilitation Programs for Escaping from Prostitutio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2002.

[3] Min Kyeong, Kim. "A Study of service for female sex workers".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04.

[4] Kathleen, B..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5.

[5] Hae Rok Na. "The Case Studies of Drama Therapy on Victims of Sex Traded Women - Self-esteem, Emotional st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 paper of masters degree.

2005.

[6] Kyung Sook Jung.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the Support Program for Victims of Prostitutio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21, p.25-43. 2010.

[7] Hyeon Sun Kim. "The violent nature of Prostitution and PTSD of Victims of Sex Traded Women Graduate School of Civil Society & Welfare", Sungkonghoe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02.

[8] Farley, M, Baral, I, Kiremire, M., & Sezgin, U. "Prostitution in Five Countries: violenc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eminism & Psychology, Vol.8, No.4, p.405-426. 1998.  
DOI: <http://dx.doi.org/10.1177/0959353598084002>

[9] Jin Kyung Cho. "Being with sexualworkers. Monthly Magazine Welfare Trends", Vol.75, p.24-29. 2005.

[10] Jeong Ho Cha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reatment in Patient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44, No.2, p.158-164. 2005.

[11] Jung Ja, Cho. "The development of a group art therapy based on reality therapy for female prostitutes - focused on sociality, self-esteem, and internal control". The Graduate School, Kyungseong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06.

[12] Min Soon Choi. "Art Therapy for Prostitutes - importance of differentiating therapeutic programs according to the degree of PTSD".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06.

[13] Shaw, I. & Butler, I. "Understanding Young People and Prostitution: A Foundation for Practic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Vol.28, No.2. p.177-196. 1998.  
DOI: <http://dx.doi.org/10.1093/oxfordjournals.bjsw.a011322>

[14] Barrette, D. "Young people and prostitution: Perpetration in Our Midst". International of Law Computers and Technology, Vol.12, No.3, p.475-486. 1998.  
DOI: <http://dx.doi.org/10.1080/13600869855315>

[15] James, J. "Motivation for entrance into prostitution. Crites, L. (Ed) The female offender". Lexington, MA: DC Heath. 1976.

[16] West, J. Prostitution: "Collectives and the politics of regulation.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Vol.7, No.2, p.106-118. 2000.  
DOI: <http://dx.doi.org/10.1111/1468-0432.00098>

[17] Mi Ae Nam & Bong Sun Hong. "The difference on victim experience of adolescent prostitutes in the socie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6, No.2,

- p.63-94. 2009.
- [18] McMullen, R. J. "Youth prostitution: A balance of power". *Journal of Adolescence*, Vol.10, No.1, p.35-43. 1987.  
DOI: [http://dx.doi.org/10.1016/S0140-1971\(87\)80031-3](http://dx.doi.org/10.1016/S0140-1971(87)80031-3)
- [19] Schissel, B. "Blaming children. Halifax", NS: Fernwood.1997.
- [20] Ju Youn Kim. "The Influence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on interpersonal problems in undergraduate student". Graduate Scho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07.
- [21] Yea Jung Kim, Deuk Sung Kim. "Characteristics of Violence Group in Dating Relationships and Contextual Factors Surrounding Physic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4, No. 2, p.187-211. 1999.
- [22] Dae Sik Hwang. "Psychology of Love and Marriage". Seoul: Chungam Media. 2002.
- [23] Allen, J. G.. "Coping with trauma: A guide to self-understand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1995..
- [24] Eun Jung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voidance Coping Style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Early adulthood depression".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09.
- [25] Herman, J. L., & van der Kolk, B. A. "Traumatic Antecedents Questionnaire. Cambridge, Mass", Cambridge Hospital. 1990.
- [26] Yoo Kyung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Psychological Symptom, Interpersonal Problem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ttachment". The Graduate School, Ewha women's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06.
- [27] Briere, J., & Runtz, M. "Multivariate correlates of childhood psychologic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mong university women". *Child Abuse & Neglect*, Vol.12, No.3, p.331-341. 1988.  
DOI: [http://dx.doi.org/10.1016/0145-2134\(88\)90046-4](http://dx.doi.org/10.1016/0145-2134(88)90046-4)
- [28] Jeang Hee Ha. "The Relationships Between Abusive Family Environment and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Skills".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1993.
- [29] Eun Jung Cho & Gi Hag Lee. "The Effect of Emotional Abuse in Childhood on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kills: Mediated by Self-Efficacy and Locus of Control".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5, No.3, p.583-595. 2004.
- [30] Nan Young Kim. "Moderating effect of Protective factors that influence social adjustment among children who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08.
- [31] Yoon Kung Park. "The mechanism of the influence of childhood emotional abuse on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07.
- [32] Shapiro, D, L, & Levendosky, A, A. "Adolescent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The mediating role of attachment style and coping in psychological and interpersonal functioning." *Child Abuse Neglect*, Vol.23, No.11, p.1175-1191. 1999.  
DOI: [http://dx.doi.org/10.1016/S0145-2134\(99\)00085-X](http://dx.doi.org/10.1016/S0145-2134(99)00085-X)
- [33] Tae Young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Early adulthood Interpersonal Problem". The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11.
- [34] Ji Young Hwang.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parent-child, perfectionis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The Graduate School Hongik Univ. paper of masters degree. 2005.
- [35] Su Gee Kim. "MMPI-2 Profiles in Relation to Complex PTSD of Female Sex Work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Vol.27, No.4, p.705-726. 2012.
- [36] Graham, D., Rawlings, E. I., & Rigsby, R. K. "Loving to survive: Sexual terror, men's violence, and women's lives." 1994.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37] Kyoung Hee Lee & Bong Hwan Kim. "Interpersonal Ability: Comparison of Clusters by Emotional Clarity, Affect Intensity, and Emotion Regulation style. *Korea Journal of Psychology: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2, No.2, p.369-384. 2010.
- [38] Shaver, P. R., Hazan, C., & Bradshaw, D. Love and attachment: "The integration of three behavioral systems." Sternberg, R. J. & Barnes, M. L. (Eds) "The Psychology of lov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88.
- [39] A my Woo. "Investigation of Factors Affecting Jibchack Behavior of Romantic Relationship and Development of Jibchack Behavior Scal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08.
- [40] Pelcovitz, D., van der Kolk, B. A., Roth, S., Mandel, F., Kaplan, S., & Resick, P. "Development of a criteria set and a structured interview for disorders of extreme stress (SID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10, No.1, p.3-16. 1997.

- DOI: <http://dx.doi.org/10.1002/jts.2490100103>
- [41] Hyun Ji Kim. "The Affectionate Relationship with children's mother, loneliness of childre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clination." *Journal of children study*, Vol.16, No.2, p.1225-1798. 2003.
- [42] Su Hyeong Choi. "A study on the Social factors of Prostitution. Korea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03.
- [43] Hye Young Shin. "Evaluation of Social,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for Resocialization of Female Victims of Sex Slavery." The Graduate School Kyungnam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05.
- [44] Chang Yong Hwang. "A study on the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 for female sex workers." Graduate School of Pyeongtaek Univ. paper of masters degree. 1998.
- [45] Eun Gyoung Park. "The Problems of woman disable's prostitution and antiprostitution's law."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15, No.1, p.171-200. 2004.
- [46] Hwa Ran Kwan. "A Study on the Legal validity of Prostitution Law in Korea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09.
- [47] Ji Hye Kim. "A Study of Legislative Process of Anti-Prostitution Act. *Ewha Gender Jurisprudence*," Vol.1, No.1, p.237-242. 2010.
- [48] Mi Hye Won. "A study on the control and exploitationover prostitutes in Korean society." The Graduate School, Ewha women's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1997.
- [49] Mi Suk Kim. "A Study on De-Sex Trade Factors of Women in the Sex Trade Sites and of Women outside the Sex Trade Sites : Focused on 10 Sex Trade Sites Graduate Scho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07.
- [50] So Yeon Kim. "A Study of Effects of Experience of Former Prostitutes on Psychiatric Health."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04.
- [51] Ji Min Lee.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syndrome in victims: Intended for Prostituted Women."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07.
- [52] Jeong Ae Byun, "A study on the fixation mechanisms of prostitution(On the basis of the experiences of post-prostitute women)." Graduate School of The Catholic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04.
- [53] Jae Hee Choi. "A Study of Family Violence Experience and Sexual Attitudes Affecting Sexual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 Moderating Effect of Anger-Control." Graduate School of Gyeongsang National Univ. paper of masters degree. 2012.
- [54] Eun Ju Yu. "A Study on Self-Consciousness of Juvenile Prostitutes Studies on Korean Youth" Vol.16, No.1, p.195-224. 2005.
- [55] Sun Hee Lee.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xperience of prostitution of the female runaway juveniles." The Graduate School, Kyungseong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09.
- [56] Hae Gyoung Lee. "Gender Differences on Social-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ith Prostitution Experience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1, Vol.16, No.4, p.423-444. 2011.
- [57] Mi Kyung Lee. "Study on prostitute women's self-image formation process." The Graduate School,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04.
- [58] Min Soon Choi. "Art Therapy for Prostitutes-importance of differentiating therapeutic programs according to the degree of PTSD."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06.
- [59] Jung Ja Cho. "The development of a group art therapy based on reality therapy for female prostitutes - focused on sociality, self-esteem, and internal control." The Graduate School, Kyungseong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06.
- [60] Hyun A Oh. "The effects of group arttherapy to increasing of adolescent sex worker's self concept". The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06.
- [61] Na Rae Ko. "The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Difficulties and Interpersonal Problem who had Complex Trauma in Childhood".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07.
- [62] Eun Young Choi. "Effects of Childhood Interpersonal Trauma Exposure on Impaired Self-Capacities in College Women: The Mediating Role of Internalized Shame".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paper of masters degree. 2010.
- [63] Engels, M. L., Moisan, D., & Harris, R. "MMPI indices of childhood trauma among 110 female outpati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63, No.1, p.135-147. 1994.
- DOI: [http://dx.doi.org/10.1207/s15327752jpa6301\\_11](http://dx.doi.org/10.1207/s15327752jpa6301_11)

김 수 지(Su-Sie Kim)

[정회원]



- 1992년 8월 : 고려대학교 고려대학원 심리학과(심리학석사)
- 1999년 8월 : 고려대학교 고려대학원 임상심리학(심리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대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2012년 11월 ~ 현재 : 한국사진치료학회 회장

<관심분야>

영화치료, 사진치료